

기술표준원, 친환경 PCB 세미나 2월28일 개최

전자전자제품에 대한 환경규제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대응을 위해 친환경 PCB 동향을 소개하는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.

산자부 기술표준원(원장 김혜원)은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EU의 환경규제(WEEE, RoHS)에 국내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 PCB 기술 및 국제표준화 동향에 대한 세미나를 2월28일에 기술표준원 중강당에서 개최한다.

참석대상은 PCB(Printed Circuited Board: 인쇄회로기판) 생산기업 및 EU 수출 전자제품 생산기업(중소기업) 150여명이다.

세미나는 친환경 PCB 전문가가 참여해 △RoHS 규제와 PCB업계의 대응방안 △Package용 친환경 인쇄회로기판재료의 개발현황 △Main Board용 무연 인쇄회로기판재료의 기술동향 △무연 PCB 생산기술 개발방안 △친환경 PCB 제조기술-신뢰성 평가사례를 통한 검토 △친환경 PCB 국제표준화 현황(IEC TC91)을 중심으로 이루어 질 방침이다.

세미나에서는 국내 수출기업의 관심이 높은 친환경 PCB의 기술과 국제표준화활동을 소개함으로써 EU의 전기전자제품의 규제조건인 납 및 할로겐의 사용금지에 대한 대응방안 및 개발사례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<화학저널 2006/02/08>